

# 중국대학 파견 교환학생 결과보고서

## ■ 파견대학 정보

대 학 명	천진외국어대학교	기숙사비	7200위안/한 학기
파견지역	천진	기숙사비 납부방법	일시불( <input checked="" type="checkbox"/> ) 분할납부(    ) ※분할납부시 납부횟수를 기재
파견기간	2017.09.04-2018.01.06	기타비용	

## ■ 파견자 정보

성 명		학 과	보건행정경영학과
성 별		학 년	3

본인은 순천향대학교 교환학생으로서 상기와 같이 수학하였으며 수학 결과 보고서를 첨부와 같이 제출합니다.

- 첨부 1. 대학 현황 보고서  
2. 교환학생 파견 수기

2018. 01. 18.

파견자 : ( 서 명 )

국제교육교류처장 귀하

# 대학 현황 보고서

## ■ 수업

※ 교육과정, 수업지도 방식, 지도교수, 수업과제 등 수업관련 세부 내용을 기재해 주세요.

개강 첫 날 레벨테스트를 보고 자기 수준에 맞는 반을 추천받게 됩니다. 하지만 개강 첫 주 동안은 자유롭게 이 반 저 반 옮겨 다니며 수업을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 본인 수준에 더 적합한 반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저는 레벨테스트 당시에 배정받았던 레벨보다 한 단계 높은 반을 선택했습니다. 레벨은 초급1,2,3, 준중급, 중급1,2,3, 준고급, 고급1,2,3 으로 세분화되어있는 편입니다. 개강 후 일주일동안 신중히 고민한 후에 반을 결정해야 합니다. 한 번 반을 결정하게 되면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수업이 어려워 따라가기 힘들 경우 낮은 레벨의 반으로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수업이 평이하다고 느껴 레벨을 높이고 싶을 경우에는 반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한국인 유학생들은 본인 수준보다 높은 레벨의 반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업은 독해, 듣기, 말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쓰기 수업은 따로 없습니다.

## ■ 환경 (위치, 기후, 교통, 주변 편의시설 등)

천진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더더욱 미세먼지가 심했습니다. 환창한 날엔 원거리에서 잘 보이던 건물들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시야에서 사라질 정도로 미세먼지 수준이 심각합니다. 미세먼지가 한 번 심해지면 보통 2-3일 길게는 5일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천진에 도착했을 때 9월 초였는데 10월초까지 굉장히 더웠습니다. 양산 필수. 4개월의 교환학생 기간동안 비는 딱 한 번 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천진은 비가 자주 내리지 않는 지역인 것 같습니다.

천진의 겨울은 생각보다 많이 춥지 않았습니다. 제일 추울 때가 영하 8-9도 정도였습니다.

현지인들 말로는 천진의 이번 겨울이 많이 춥지 않은 것이라 하더군요. 원래는 더 추운가 봅니다.

천진은 베이징에서 가오티에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천진이 베이징보다 더 세련되고 예쁜 도시라고 느꼈습니다. 천진은 야경이 예쁜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천진외대는 천진의 변화가 근처에 위치한 학교입니다. 학교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한국의 명동거리와 비슷한 변화가가 있습니다. 천진외대는 천진 내에 있는 다른 대학교들에 비해 비교적 시내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어 생활하는 데 있어 매우 편리했습니다.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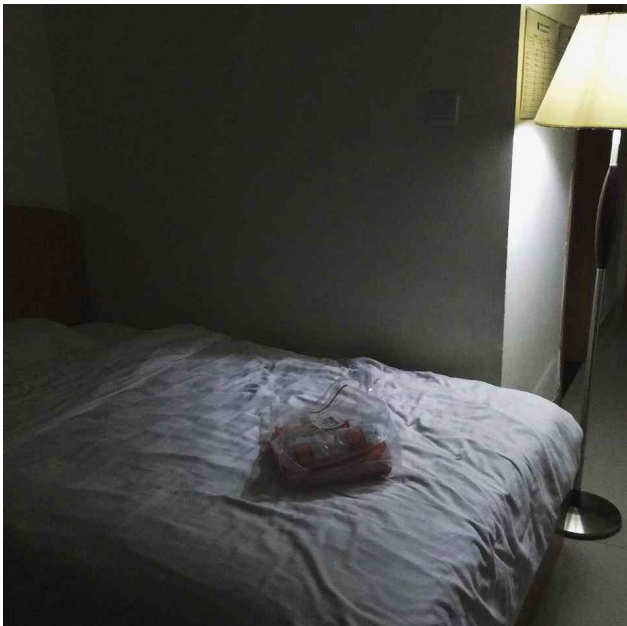
## ■ 기숙사 정보

비 용	한학기 사용료 7200위안	내부구조	2인 1실
기숙사 규정 사항	통금은 따로 없습니다. 자유로운 분위기입니다.		
주위사항	유학생 담당 선생님께서 갑자기 방 검사를 하러 들어오십니다. 기숙사가 호텔건물이라 마스터키로 그냥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뺏어간다고 하네요... ㅎㅎ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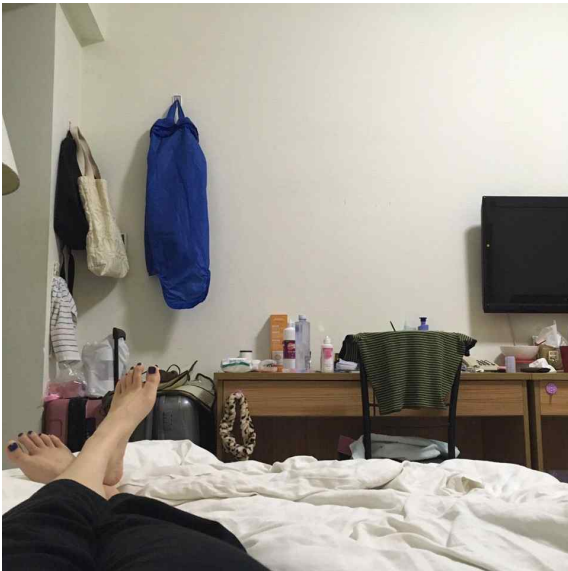
침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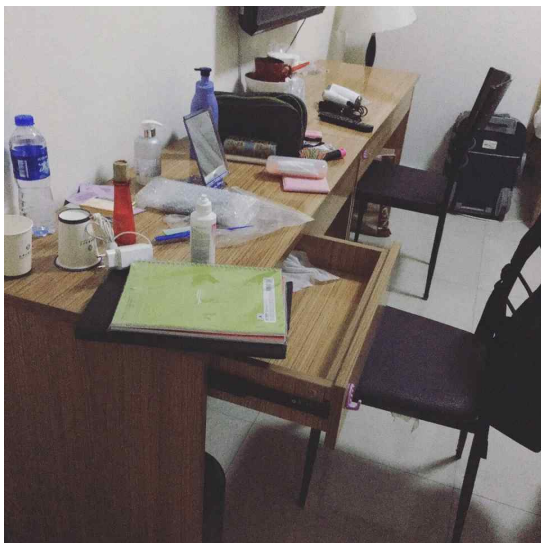
다른 방 침대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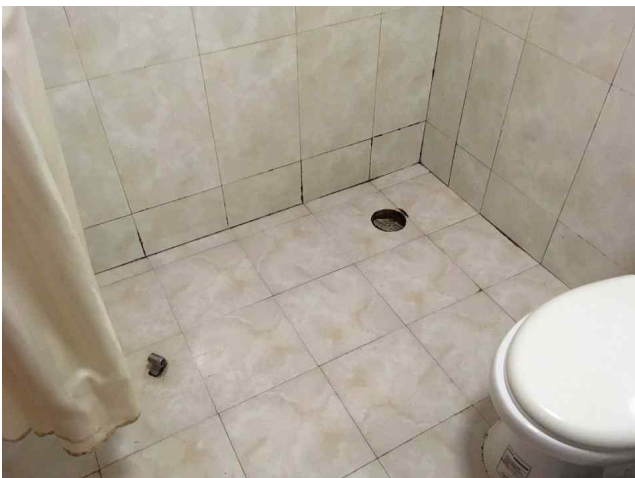
## ■ 기숙사 내부 사진 설명



침대에 누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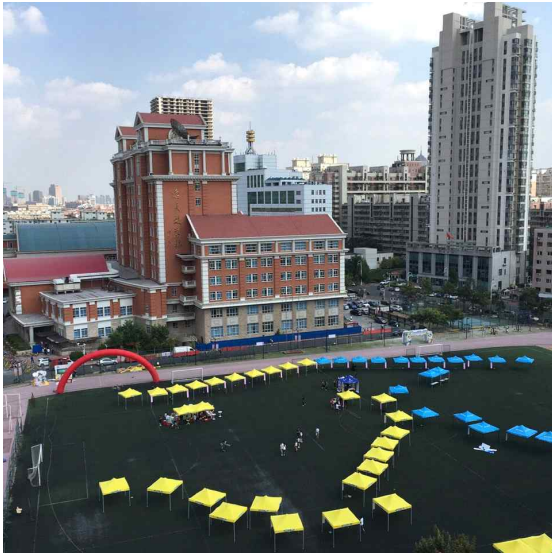
책상



화장실

# 대학 현황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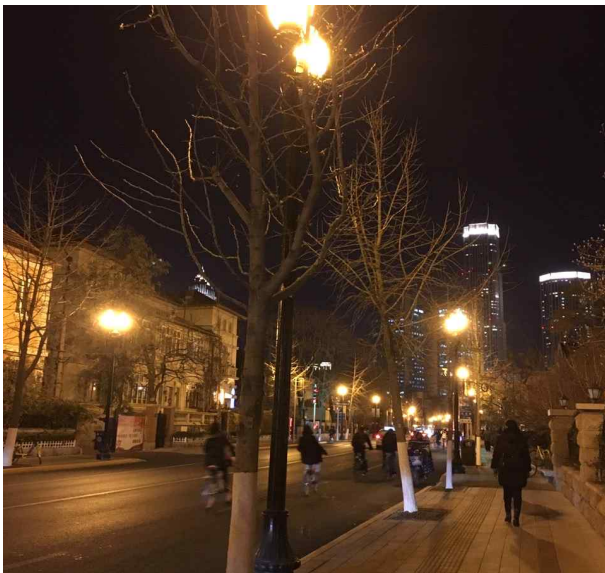
## ■ 기타 시설 (도서관, 강의실, 식당, 세탁실 등)



기숙사에서 바라본 운동장과 강의동



기숙사 외관



학교 주변 거리(매우 안전함)

## 교환학생 파견 수기

※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여 후 느낀점 혹은 소감
2. 수업 외 활동 내용(여행, 교내 외 각종 활동했던 경험)
3. 프로그램에 대한 기타의견 등

저는 중국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전공을 배우는 중이고 그렇다고 중어중문을 복수전공하는 것도 아니지만 오로지 새로운 언어에 대한 흥미 하나로 중국 교환학생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과 중국어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1학년 때 저의 학과 중국인 유학생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부터 중국어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가고 싶을 정도의 흥미는 아니었기에 교환학생 지원을 결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3학년 1학기에 지금 이 아니면 다른 나라 언어를 현지에서 직접 배워볼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교환학생을 지원했고 3학년 2학기를 중국에서 보내게 됐습니다. 3학년 2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과 전공과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교환학생을 선택했습니다. 졸업시기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충동적으로 교환학생을 결정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 기간 내내 내가 맞는 선택을 한 것인지, 지금 중국어를 배운다고 취업에 도움이 되는지, 내 전공이랑 중국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 등등의 걱정과 고민이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궁금한 것은 내 중국어 실력이 얼마나 늘 것인가 이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을 가기 전 2개월 동안 중국어 학원에서 기초를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교환학생 기간 초기엔 수업시간에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을 하나도. 단 하나도 알아들지 못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자기 수준보다 높은 반에서 수업을 들어야 실력이 금방 는다고 하여 저는 제 수준보다 약간 높은 반을 선택했습니다. 처음엔 중국어를 전혀 알아들지 못해서 ‘내가 이걸 알아들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의심이 들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어느 순간부터 저는 중국인 선생님의 말씀을 대부분 알아들고 있었고 중국인 친구랑 대화하고 있었고 영어보다 중국어가 먼저 떠오르고 심지어 중국 웹드라마까지 찾아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수업 나가서 듣다 보니 자연스럽게 귀가 뚫리고 말문이 트인 것 같습니다. 학교 밖에서 만나는 현지인들이 구사하는 말은 얼화가 심해서 여전히 한 번에 알아들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중국어를 할 줄 모르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수준에서 4개월 만에 위와 같은 발전을 한 것은 굉장히 큰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어는 현지에서 직접 배우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말하기 기말고사 시험을 볼 때 선생님께서 제 발음이 정말 좋다며 중국어를 배운지 얼마나 됐냐고 칭찬해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 ‘한국에 돌아가서 지금 이 실력을 방치시키지 말고 중국어 공부를 계속했으면 좋겠다.’ 고 하신 말씀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 전공과 중국어가 무슨 상관이 있냐, 취업에 무슨 도움이 되냐며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저 또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저는 앞으로도 자기계발 차원에서 중국어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고 HSK도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배운 중국어가 앞으로 저에게 어떤 기회를 가져다 줄 지를 생각하면 무척 기대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중국 교환학생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녀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인 친구들을 사귀고 그들을 알아가는 과정에서 중국 정치, 지리, 문화 등의 측면의 지식을 쌓을 수 있었고 전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중국 교환학생을 통해 저는 중국어 실력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까지 갖게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중국 교환학생이 아니었다면 얻지 못했을 것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 중국교환학생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지원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